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배포 : 2024년 6월 5일(수)

제4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 개최

- 공급망, 핵심신흥기술대화, 디지털, 인프라 분야 협력 강화 -
- 미, 일은 AI 서울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 -

한국, 미국, 일본 3국 정부는 오늘(현지시간 6/5, 수) 미국 샌디에고에서 「제4차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이, 미국에서는 타룬 차브라(Tarun Chhabra)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기술·국가안보 담당 선임보좌관이, 일본에서는 다카무라 야스오(高村泰夫) 국가안전보장국 내각심의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에서 ▲공급망, ▲핵심신흥기술, ▲디지털, ▲인프라 보안 등 4개 분야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3국은 작년 2월 이후 세 차례의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진전시켜 온 여러 협력 의제들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공급망 분야에서 한미일은 3국 안보실 간 조기경보시스템(EWS) 연계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며, 핵심광물 분야의 공동투자 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핵심신흥기술 분야의 경우 3국의 국립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협력을 위한 정부
약정서가 지난 4월 체결된 만큼, 이에 근거해 각국 전문가들이 조속히 공동연구
과제를 도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출범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3국 기술보호 법 집행당국 간 정보 공유 등 공조를 강화
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분야에서 3국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AI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환영하면서, 「AI 서울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3대 가치인 ‘안전·혁신·포용’을 반영하는 글로벌 AI 거버넌스를 수립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3국은 각국의 데이터 보안 이슈 및 대응 방향을 공유하고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3국은 핵심 인프라 보안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적극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3차 회의에 이은 제4차 회의로, 한·미·일 3국은 금년 하반기 중 적절한 시점에 차기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끝>